



한국화재보험협회와 경찰청, 화재감식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화재보험협회와 경찰청은 5월 4일 경찰청에서 화재현장 및 관련 증거물 조사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화재원인조사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원인에 대한 국가 수사체제를 민간 공인시험기관에서 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으로 뒷받침하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여 체결되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화재현장조사, 화재원인조사 관련 연구개발,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공동워크숍 개최 등 방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감식교육과정에 경찰청 소속 현장감식요원을 참여시키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요원 상호지원을 통해 양 기관의 화재감식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협회 창립 37주년 맞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5월 14일(금) 오후 4시 협회 1층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직원교육 등을 통한 최고 수준의 안전점검 기술력 향상, △고품질의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화재조사센터 신설을 통한 화재조사업무 강화, △화재안전문화 정착 사업 등에 주력하여, 정부나 보험업계로부터 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발전하자고 다짐하였다.

고영선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공하는 기업의 비결은 변화에 적절하게 잘 대처한다”며, 직원들에게 “변화에 대한 마음자세를 굳건히 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에 대한 화재예방 계몽활동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임무로서, 협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화재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며 “4가지 주력 사업을 바탕으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한다면 그 모두가 자연스럽게 모여 훌륭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